# 기 념 사

**이 구 택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존경하는 전상우 특허청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및 수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뜻 깊은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명특허계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축하와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 지식정보혁명이라는 인류사적인 거대한 변혁과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지식재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우수 발명인재의 양성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발명진흥정책이 알찬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초등학생도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발명가가 우대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국 초중고대학의 발명동아리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명가의 꿈을 키우고 있으며, 대학에 발명특허학과가 신설된 데 이어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발명과가 생겨났습니다.

존경하는 발명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발명인 여러분과 전국의 100만 발명인이야말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 힘이요 기둥 ’이라고 확신하며, 후진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창의적이고, 발명 지향적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매우 높고 모험심과 도전정신 또한 강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저력을 잘 계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이 기술을 특허제도로 잘 보호하고 활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계 일류국가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아내듯 모든 국민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발명으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명가로도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특허를 “ 천재라는 불꽃이 더 잘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는 것 ”이라고 비유한 말을 상기하면서, 기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주인공이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